

2015년 12월 20일 주일 설교

와싱턴한인교회 김영봉 목사

‘제자됨을 허무는 열 한 가지 사상’(11): 공포주의(Terrorism)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 (Love Is Stronger Than Fear)

마태복음 2:1-12

Merry Christmas! 성탄을 맞아 교우님들의 영혼에,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천년 전 첫 번째 성탄일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모두 잠 자고 있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이름 없는 한 동네에, 한 비천한 부모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태어나신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Nativity Scene 이라 부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신비감이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갈등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의 기운은 전혀 보이지 않고, 평화와 감사와 신비와 기쁨만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표현은 진실의 한 면만을 전해 줍니다. 신비롭고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그 그림의 이면에 있는 불안과 공포와 갈등과 아픔과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시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테러’입니다. 1999년 9월 11일에 일어난 대 테러 사건 이후로 미국은 점점 증가하는 테러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오고 있습니다. ISIS가 해외에서 벌이는 테러 행위도 공포스럽지만, 이제는 미국 안에서 그들에게 동조하여 생겨난 테러범들이 더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2천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과 꼭두각시왕의 이중 지배 체제 아래 짓눌려 있었습니다. 빈번히 일어나는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 로마 군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면서 여차하면 연행해서 고문을 가했고, 죄없는 보통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그 어느 때보다 어둠이 짙었던 세상, 희망을 부여잡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살며 하루의 안위에 만족해야 하는 세상,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공포스러운 세상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Nativity Scene의 배후에 숨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2천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동일합니다.

사전은 Terrorism를 "겁을 주거나 강제하기 위하여 폭력과 위협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달리 말하면, 테러리즘은 공포 즉 두려움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공포라고 믿는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내적인 힘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너무도 취약합니다. 삽시간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무력화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마주 하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특별히 두려움은 폭력으로 표출될 경우가 많습니다. 테러의 감정이 테러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읽은 동방 박사과 헤롯 대왕의 이야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 태어난 왕을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헤롯 대왕은 당황(마 2:3)했습니다. 여기서 ‘당황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타라쏘’입니다. 이것은 ‘놀라다’ 혹은 ‘공포에 질리다’는 뜻입니다. 헤롯 대왕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 아닌 자기가 로마 황제의 후원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시다. 그것이 헤롯 대왕을 항상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는 암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떨었습니다. 그러던 헤롯 대왕이었으니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만들었고, 결국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두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를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가장 강한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 사회는 공포의 전염병으로 인해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 줍니다. 일상화된 테러로 인해 마비되어 가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결국 모든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의 내면에는 분노도 있을 것이며 원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러의 근본적인 동기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첫 성탄절의 이야기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처럼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첫 성탄절 이야기에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웃의 두려움까지 다독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 첫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와 기쁨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상하리만큼 자주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던 요셉에게도, 천사의 방문을 받고 놀라는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도,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전하던 천사는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눈이 멀고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사는 가장 먼저 그들의 두려움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그랬기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랬기에 목자들은 성탄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Fear no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즈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정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생겨난 질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살도록 지어진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일 4:18)**

마치 전이된 암세포처럼 세계 구석 구석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테러라는 전염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머물러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안에는 테러리스트가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발미만 주면 그는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손을 이용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는 사랑에 굶주릴 때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테러리스트는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나올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열심히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하고 두려움을 자극하고 두려움으로 응수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약한 길을 택할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탄을 맞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음성을 마음 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실로써 사랑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속회자료> 2015년 12월 20일 주일 설교 "제자됨을 허무는 열 한 가지 사상"(11)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Love Is Stronger Than Fear)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115 장(통 115 장)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마태복음 1-2 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느꼈던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10 분)
4. 말씀의 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테러가 일상사가 된 오늘의 현실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 3) 당신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당신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4)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진리를 당신은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6. 기도
 - 1)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도록 기도하십시오.
 - 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열심을 구하십시오.
7.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126 장(통 126)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